

곡성군, 치매 극복 선도단체 지정 안전망 구축한다

고달우체국 등 가맹점 3곳 신규 전체 17개소...지역사회 참여 관심 치매 어르신 임시 보호·신고 역할 인식개선 친화적 환경 조성 목표

곡성군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과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치매 극복 선도단체와 치매 안심 가맹점 등을 지정해 치매 안전망 구축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20일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 13일과 18일 관내 고달우체국, 짬뽕나라, 곡성로템 주간보호센터 3곳을 치매 극복 선도단체 및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지정하고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에 지정된 가맹점과 단체들은 앞

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재능을 활용해 방문객들에게 치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치매 인식개선 홍보활동 △치매 조기검진 연계 △배회하는 치매 어르신 임시 보호 및 신속한 신고 등으로 치매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은 구성원 전부 치매 파트너 교육을 이수해, 지역내 치매 극복활동 및 치매 친화적 사회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곡성군은 이번 신규 지정된 곳을 포함해 지역내 치매 극복 선도단체 총 17개소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치매 극복 선도대학 1개소, 치매 극복 선도학교 1개소, 치매 극복 선도도서관 3개소, 치매 극복 선도기관 6개소, 치매 안심 가맹점 6개소로 모두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곡성군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



곡성군이 치매 인식개선과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고달우체국 등 3곳을 치매 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했다. 곡성군 제공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역사회의 주체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치매 극복 선도단체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며 치매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게 살 수 있도록 촘촘한 치매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치매 극복 선도단체 지정에 관심이 있는 기업, 기관, 단체, 학교, 대학 등은 치매안심센터(061-360-8981)로 문의하면 된다. 곡성=김대영 기자

장성군, 2학기 대학생 등록금 지원 누적 8회까지...내달 20일까지 접수

장성군이 지난 18일부터 ‘2024년도 2학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했다.

20일 장성군에 따르면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은 민선 8기 장성군의 핵심공약 중 하나로 등록금 일부담액을 학기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누적 8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성군이 지난해부터 전남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보호자가 공고일(2024년 11월 11일) 기준 3년 이상 장성군에 주민등록 완료△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 C학점 이상 취득 △30세 이하(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 국내대학 재학생이다.

앞선 5-6월, 8-9월 중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2학기분을 신청해 둔 학생만 이번 등록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오는 12월 20일까지로 필요한 서류를 갖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군은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교내 장학금, ‘국가장학금 II’ 유형 등이 결정되는 내년 1월 초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신입생 등 내년 1학기 기본 등록금 지원을 원하는 학생은 이달 21일부터 12월 26일 또는 내년 2-3월 중 한국장학재단에 2025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미리 신청해 놓아야 한다”며 “지원 요건과 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화순군, 불법 환전·결제 거부 등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집중단속

화순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화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내달 20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군은 연중 상품권 부정유통신고센터(061-379-3162)를 운영하고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철저한 분석을 통해 의심 가맹점에 대해서는 불시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즉시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당 이익금 환수 조치 등 재정처분이 내려지며 대규모 ‘깡’ 등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박용희지역경제과장은 “화순사랑상품권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지만, 상품권의 구매와 사용시 주민들의 건전한 사용이 전제되어야만 진정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며 “군민 모두가 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에 앞장 서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2025 나주시 올해의 책

나주 시민과 함께 나누고 읽고 싶은 책을 추천해 주세요
추천 기간: 2024. 11. 11. ~ 12. 16.

대상 나주시민 누구나

추천분야 4개분야(어린이, 청소년, 일반 문학, 일반 비문학)

추천방법

- 온라인: 나주시립도서관 누리집 > 올해의 책 > 올해의 책 추천(계시문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시립도서관(나주, 빛가람), 권양남도교육청도서관(나주, 남평), 동신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추천서 제출 (추천서는 올해까지 다운로드 또는 각 도서관에 비치)

도서 추천 기준

- 해당 연령층이 함께 읽고 토론하기 좋은 책
- 작가초청 강연, 토크쇼 등 독서문화행사를 개최하기 좋은 책
- 가급적 최근 1년 이내 발간된 국내 출판사(외국 저자의 책으로 공판과 감당이 있고 작품성, 시대성에 앞서는 책)
- 누구나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시종에서 구하기 쉬운 대중적인 책
- 국내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작성을 인정받은 책
- 다관련, 절판도서, 상단·중고·정치적 성향이 짙은 책은 제외
- 어린이(2023~2024) 나주시 올해의 책 선정도서 제외

나주시립도서관 ☎ 333-6541 | 빛가람도서관 ☎ 333-6506 | 용대도서관 ☎ 330-3807
권양남도교육청도서관 ☎ 335-6723 | 권양남도교육청남평도서관 ☎ 337-9436

나주시, '올해의 책' 추천 접수 내달 16일 까지 4개분야 선정

나주시가 전남도교육청, 동신대학교와 함께 2025년 나주시민과 함께 읽을 '2025년 올해의 책' 후보 도서를 오는 12월 16일까지 추천받는다.

20일 나주시에 따르면 '올해의 책' 사업은 시민들이 함께 도서를 선정해,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함께 읽고 소통하는 '책 읽는 나주'의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독서 운동이다.

선정 부문은 어린이도서, 청소년도서, 일반 문학도서, 일반 비문학도서 4개 부문으로 시민 추천 도서를 대상으로 각 부문별 도서 선정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거친 후 시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나주시민은 시립도서관 누리집이나 관내 공공도서관과 동신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방문해 추천서 또는 QR코드를 통해 추천하면 된다.

시는 '2025년 나주시 올해의 책'이 선정되면 선포식 및 작가초청 강연회, 테마도서 전시회, 나주시 독서왕 선발대회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문화진흥 사업을 시민들과 함께할 계획이다. '2025 나주시 올해의 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나주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올해의 책을 선정하고 함께 읽는 과정을 통해 더 많은 시민 참여와 문화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며 “2025년 나주시 올해의 책 추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나주=김영의 기자



화순고인돌선사체험 참가자들이 지난 16일 농경체험장에서 채소 수확을 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화순고인돌선사체험장, '선사인의 식탁 체험' 성황

내년 4월 중 재개장 예정

화순군이 지난 16일 화순고인돌선사체험장에서 청동기 시대의 식문화를 주제로 한 '선사인의 식탁, 고기굽기 체험'을 성료했다.

20일 화순군에 따르면 이번 체험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을 포함한 4인 가족을 대상으로 사전 모집을 통해 진행됐으며 당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생생한 체험의 시

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청동기시대 대표적인 농경 도구인 반달돌칼을 직접 만들어 채소를 수확하고 고기를 굽는 등 당시 사람들의 일상적인 식생활을 오감으로 체험했다. 체험 후에는 전통 연희 공연이 이어져 참가자들과 일반 관람객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다. 윤재관 고인돌사업소장은 “이번 체험을 통해 단순한 놀이를 넘어 고인돌 문화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었길 바란다”며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청동기시대 사람들의 삶을 함께 체험하고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고인돌선사체험장은 지난 11일부터 임시 휴장에 들어갔으며 내년 4월 중 재개장할 예정이다. 관련 사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화순군청 고인돌사업소(061-379-3515)를 통해 가능하다. 화순=김선종 기자

장성군, 동화속 상상의 나라 '원더랜드' 만든다

전남 균형발전 300프로젝트 선정 300억원 확보...관광특화공간 조성 2026년부터 장성호관광지 조성

장성군이 전남도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돼 그동안의 숙원이었던 관광특화공간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20일 장성군에 따르면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는 총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해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전남

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이다. 장성군은 올해 공모에 '장성 원더랜드 프로젝트'를 제안해 최종 선정됐다. 이에 도·군비 포함 사업비 300억원을 확보한 장성군은 오는 2026년부터 북하면 장성호관광지 일원에 관광특화공간을 조성하는 '원더랜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더랜드(wonderland)'는 '동화 속 상상의 나라'라는 뜻이다. 장성호 상류지역에 자리잡은 장성호관광지는 임권택시네마테크, 문화예술공원 등을 갖추고 있으며 유휴지 포함 25만㎡

에 이르는 넓은 부지를 자랑한다. 지역민과 관광객의 이용이 꾸준했지만 건립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시설 노후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장성 '원더랜드 프로젝트'는 장성호관광지에 예술공원, 복합문화공간, 어린이 테마파크, 반려동물 테마파크, 숙박공간 등을 조성해 사계절 관광명소를 만드는 사업계획이다. 시네마 특화거리, 자이언트트리, 에어바운스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갖춰 차별화된 관광체험을 선사한다. 장성=유봉현 기자